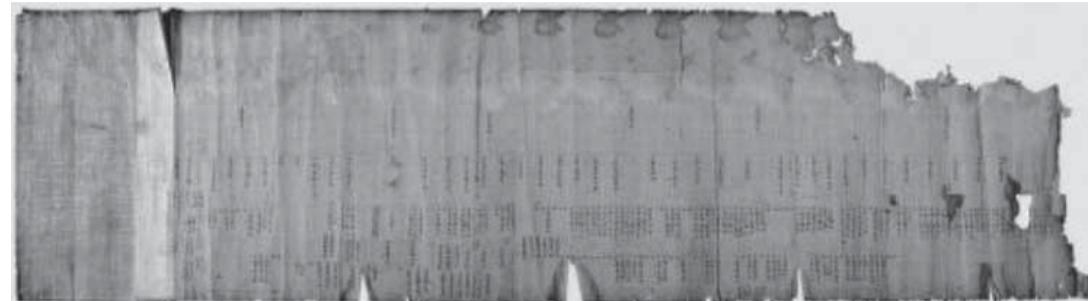


## 대독립당 창당 준비위원 독립운동가

# 권국빈(權國彬)의 잃어버린 족보를 찾아서



▲ 단종 외가의 외증외가 족도, 권여온(權呂溫)을 중심으로 현손(玄孫) 단종까지의 가계도

한 바 있다.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로 기억될 것이다. 상임위원은 구익균, 권오철, 이창길, 김윤호이고 이후 '대독립당 연구회'로 개칭하였다.

이 대독립당은 島山이 1923년부터 흘어진 독립운동단체를 재결합하여 혁명적 조직으로 하고자 해서, 구상하고 1930년경 가칭 '대독립당'이라고 하고 내부 명칭은 '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고 하고 준비위원으로 이동녕, 김원봉, 김두봉, 조성환, 최동오, 신영삼, 신국권, 권국빈, 김기승, 구익균 등으로 하였다.

그 뒤 1932년 윤봉길 상해의 거로 도산이 체포되고 임시정부는 풍비박산이 나서 유랑길에 오르면서 나중에 김구에 의해 '한국독립당'이 되니 민족대단결이 아닌 '소(小)독립당'의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고 만다.

도산이 조금 더 상해에 있으면서 '민족유일당', '대독립당'이 성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면 분단도 전쟁도 외세를 업고 국정을 놓단한 이승만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1967년 안동국회의원 선거에 강화도 교동도 출생이나 개성에서 자란 권애라(權愛羅, 1897-1973) 여사가 '한국독립당'으로 출마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여기서 도산 안창호가 1932년 피체 후 국내로 암송되어 일제의 '예심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화6년 11월 피고인 동서(同書) 주거에서 예(豫)히 동년 춘(春)경(頃)부터 조선으로 하여금 일

본제국의 ○○에서 ○○시킬 것을 목적하고 민족주자를 기(其) 산하에 규합할 만한 통일있는 ○

○○당의 조직을 제휴 회체하고 있던 권국빈의 방(訪)을 받아 서로 전기 결사의 조직에 대하여 협의를 진(進)하고 경(更)히 당시 동소(同所)에 동지 이동녕, 최동오, 조성환을 조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우(右) 결사조직에 관한 전말을 구진(具陳: 모든 것을 갖추어 자세히 진술함)하여 찬동을 득한 후 동석상(席上) 권국빈의 제안에 허(該) 결사의 명칭을 ○○전선통일동맹을 하려고 협의 결정하고 아래(爾來) 피고인은 권국빈과 누차 회합하여 ○○전선통일동맹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을 협정하고 우(又) 스스로 ○○전선통일동맹 간장(簡章)인 규약을 기안한 등 결사 조직에 노력하였으나 권국빈 담당에 관한 결사조직에 要(要) 할 자금의 조달이 불여의하여 임업(荏苒·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거나 일이 되어 갑 H시를 대(待)하고 수(遂)히 결사조직의 목적을 수(遂)함에 지(至)치 못하게 된 것이다. 제이(第二)의 결사조직의 소위(所爲)는 현행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전단(前段)에…'

내용은 島山은 1931년 '대독립당'의 조직을 회체 하던 중 권국빈(32세)의 방문을 받고 조직을 논의하고 권국빈과 도산은 수차례 사실상 대독립당을 의미하는 대일전선통일동맹을 약법과 규약을 만들고 했으나 도산이 권국빈에게 '자금이 여의치 않고 세월만 보내다가 조직결성을 못하였다'는 뜻이고 이것이 당시 치안유지법(1925-1945)'

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전향의 미수죄는 별한다. 이에 위반하여 처벌한다. 라고 나온다. 즉, 권국빈도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국가보안법'으로 변신한 것은 또다

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권국빈(權國彬)은 황해도에 권씨집성촌이 봉산군 등 세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사리원면 구천리(黃海 鳳山 沙里院 駒泉 505)에서 1901년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때 유인물 살포로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이후 황해도에서 의열단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이 하필 현충일이며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한 날과 같은 6월6일이다.

1920년 6월 6일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어수리에서 곽익호, 곽선호, 손재흥(孫再興)·김청풍(金淸風) 등과 함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립청년단(獨立青年團)을 결성했다.

이 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데 의열단 강령과 유사하다.

그리고 김청풍이 4년을 복역하게 되는 1920년 7월 11일에 결성된 '사리원결사대' 멤버로 확인 되지는 않지만 '…동지 5명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니 그 5인에는 권국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강령

1.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부할 것

2.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조선인 경찰관리와 밀정을 살해할 것

3. 한국인으로서 요구되는 독립운동 자금의 제공을 거부 또는 독립운동자를 관(官)에 밀고한 자는 살해할 것

4. 한국 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고할 것



▲ 상해 흥사단 원동지부 건물 주소지. 이 부근이 권국빈 등이 모이던 장소일 것이다.

5.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송부해 온 독립운동 선동 인쇄물을 일반 한국인에게 배포하여 그 사상을 선전할 것

그는 독립청년단 교통원(communication)을 맡았고, 1920년 7월 임시정부로부터 우송되어 온 <독립신문> 4천매와 <신한청년> 40여 부를 비밀리에 지침하고 서울로 가서 정의도·이원직 등에게 교부하는 한편, 사리원 지역 민가에도 배포하여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항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된 그는 1921년 5월 17일



▲ 안창호 공판 기사 일람. 안창호 예심유죄, 신민회 활동, 가정부(임정)연통제 제정, 실력양성, 개척지 물색, 미국서 흥사단 조직, 3항으로 구분된 범죄사실 신구차별유지법 적용등 제목이 보인다. 동아일보 1932년 10월 26일자 2면 [사진, 동네.동아미디어]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쿵 하였소, 하시더군. 허~ 결국 뭐 대독립당은 김구의 한국독립당으로 소독립당이 되었지만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더 물어보거나 알아보기 못한게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권씨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야기라도 들었다고 봐야 한다.

즉, 권국빈은 괄괄하면서 사업적인 안목도 있고 돈도 잘 썼다고 하고 좀 앞장서는 편이고 '의열단원'은 좀 덴디하고 기분파인 것으로 보아 그런 유형이었을 것이다.

또 광동에서 왔다고 하면 광주(廣州)에 남화한인연맹 등 테러를 위주로 한 애나키스트 계열 독립운동단체가 있었고 류자명(柳子明, 1894-1985) 등도 광주에 있었다.

그리고 도산의 예심조서(예비 판결문)에서 권국빈이 적극 조직사업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권국빈 스타일로 볼 때 아마 임정의 돈줄인 도산이 돈도 별로 내놓지 못하고 조심스럽고 답답하니 그와 같은 언행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보다 7-8세 어린 구의균도 20대 초반으로 팔팔한 편이었을 것이다.

당시 임정의 계파가 나뉘지고 세대별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대립하여 보수적인 전통파와 막나온 사회주의 계열, 애나키스트 계열 등이 영기고 여기에 일본의 공작이 크게 한몫하면서 이광수 귀국 등 서로 불신하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상해사변과 흥구공원 유통길의 거로 상해시대의 종マイ온다.

그러면 여기서 권문의 비운의 독립운동가 권국빈은 왜 족보에도 안나오고 사진 한 장조차 없는가? 당시 상해시대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아 하는 것 이기여 사진 같은 것은 더더욱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흥사단 원동위원회 사진은 있으나 역시 권국빈은 없다.

또한 권국빈이 황해도 출신이라 해방 후 족보에 나올 수가 없다. 아마 권애라가 개성에서 활동했으니 3.1운동 당시 권국빈의 존재를 알았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알 길이 없다.

이제 새로운 사실은 권국빈이 상해 어디엔가 묻혔다는 사실이고 그의 고훈을 위로하고 공적을 더 조사하여 높이고 그나마 남은 기록이라도 남겨서 혹시 그 권국빈의 본가나 처갓집 사람들은 후손이 선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통일부 등을 통해서 북족에 공식적인 문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힘든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가 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해 막내 족친의 단결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상해 현지에서 '권국빈 진혼제', '권국빈 기념 세미나' 등을 기획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원훈을 달래주는 뜻깊은 사업이 시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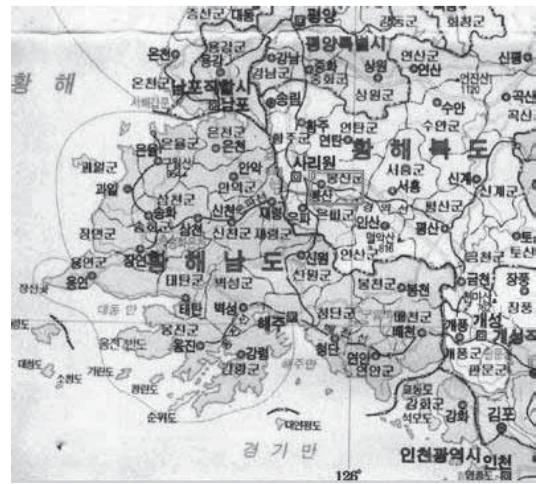
글 권오철기자



▲ 1930년 대 상해 하비로(회하중로) 프랑스조계, 한국인 밀집지역



▲ 독립신문 칠가살七可殺



▲ 개성(송도)북부 봉산군

